신(信)에 대한 이해

鄭 大 珍*

目 次

Ⅰ. 머리말
Ⅱ. 삼요체와 신(信)
Ⅲ. 신(信)의 의미
1. 신(信)의 자의(字義)
2. 신앙(信仰)의 신(信)
3. 신념(信念)의 신(信)
4. 진실(眞實)의 신(信)
Ⅳ. 성(誠)·경(敬)과 신(信)의 관계
Ⅴ. 신(信)의 실천
1. 일심(一心)의 수도
2. 신용(信用)있는 처세
3. 포덕천하의 실천
Ⅵ. 맺음말

Ⅰ. 머리말

대순진리회의 신조는 구천상제님에 대한 신앙을 실천하는 조목(條目)으로서 제시된 것이다. 크게 사강령(四綱領)과 삼요체(三要諦)로 이루어진 신조의 내용은 앞선 논총의 내용에서 차례로 다루어 온 바 있다. 삼요체의 조목 가운데 성(誠)과 경(敬)은 앞선 논문에서 이미 그 뜻을 밝혔으므로 본 고에서는 그 세 번째 조목에 해당하는 신(信)을 중심으로 신조를 설명해보기로 하겠다.

성(誠)과 경(敬) 그리고 신(信)의 의미는 각각 마음자세, 몸의 자세 그리고 일에 따른 결과를 놓고 그 고유한 이해를 요구한다. 인간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마음과 몸이 분리될 수 없고 그 행동의 결과는 또한 마음과 몸이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신(信)에 대한 의미는 성(誠)과 경(敬)이 바탕이

* 前 대진대학교학교법인 이사장, 대순사상학술원 고문

된 상태에서 모든 일을 행할 때 드러나는 신용이며 책임에 해당한다. 『전경』에 "너희들이 믿음을 나에게 주어야 나의 믿음을 받으리라."(교법1-5)고 하신 상제님의 말씀은 수도인들에게 하나의 실천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信)은 일의 결과라고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信)의 의미가 대순진리회 수도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그 실천방안은 어떻게 모색될 수 있는지를 차례로 설명해보기로 하겠다.

Ⅱ. 삼요체(三要諦)와 신(信)

삼요체에 대한 논의는 수도인의 실천생활과 관련하여 그 마음가짐 및 몸가짐 그리고 일의 성과를 규정하는 신조의 조목에 해당한다. 신조를 구성하고 있는 사강령과 삼요체는 모두 수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율령(律令)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어느 한가지라도 빠져서는 수도한다고 할 수가 없다. 그 가운데 사강령은 지켜야 할 율령의 기준이 되고, 삼요체는 몸과 마음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된다. 따라서 삼요체는 먼저 수도인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몸가짐을 조심히 하며 매사에 책임있는 처사를 행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파악될 수 있다.

앞선 논문에서 필자는 밝히기를 삼요체의 성(誠)은 순일무위(純一無僞)하고 미유부동(未有不動)하며 소원성취(所願成就)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삼았다. 그리고 경(敬)은 주일무적(主一無適)하며 예(禮)의 근본(根本)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성(誠)과 경(敬)은 마음과 몸이 흐트러짐이 없이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 핵심개념으로 자리잡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信)은 이 삼요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가. 이를 위해서 먼저 대순종단의 발간 자료를 통해 소개된 내용을 살펴보고 그 기본 시각을 정립해보기로 하겠다.

『대순진리회 요람』에 설명된 신(信)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한 마음을 정한 바엔 이익과 손해와 사(邪)와 정(正)과 편벽과 의지로써 바꾸어 고치고 변하여 옮기며 어긋나 차이가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하며

> 하나를 둘이라 않고 셋을 셋이라 않고 저것을 이것이라 않고 앞을 뒤라 안하며 만고(萬古)를 통하되 사시(四時)와 주야(晝夜)의 어김이 없는 것과 같이 하고 만겁(萬劫)을 경과하되 강하(江河)와 산악(山岳)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이 하고 기약(期約)이 있어 이르는 것과 같이 하고 한도(限度)가 있어 정한 것과 같이 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며 정성(精誠)하고 또 정성(精誠)하여 기대한 바 목적에 도달케 하는 것을 신(信)이라 한다

윗 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신(信)의 의미는 마음의 성(誠)과 몸의 경(敬)이 갖추어져 일을 행할 때 드러나는 결과를 놓고 말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信)은 사시(四時)주야(晝夜)의 변화에도 어김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기대한 바 목적을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 갖추어야만 하는 조건이 된다. 이에 대한 부연설명을 참고하기 위해 『대순지침』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자각이 없으면 확신이 서지 않는다.
> (나) 전경에 "농부가 곡식 종자를 갈무리하여두는 것은 토지를 믿는 까닭이라"하셨으니 가식(假飾)이 없는 신앙의 본의(本意)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 (다) 백성이 국가를 믿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 않는다면 난신적자(亂臣賊子)가 될 것이다.
> (라) 수도자가 믿음이 부실하면 결과적으로 난법난도자가 된다.
> (마) 일관성의 믿음을 사실화하여 삼계(三界)삼법(三法)의 성·경·신으로 자아대성(自我大成)을 위한 작업이 신(信)인 것이다.
> (바) 믿음은 의심없는 굳은 신념인 것이다.
> (사) 성(誠)은 기심(欺心)이 없어야 하며, 경(敬)은 예절을 바르게 행하는 것이며, 믿음은 의심을 품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설명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신(信)은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하여 말할 수 있다. 첫째, 진리에 대한 자각을 통해 자발적인 실천을 행하는 것으로 외면가식(外面假飾)이 없는 것이다. 둘째, 모든 질서와 예법 그리고 도덕을 행하는 근간이 된다. 셋째, 어떤 난관이나 유혹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의심없는 굳은 신념이다. 이 같은 내용이 삼요체의 하나로서 신(信)이 담고 있는 대체적인 뜻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하자면 자각된 확신과 신념으로서 행하는 모든 일의 성과를 가름하는 것이 곧

신(信)이 된다고 하겠다.

결국 삼요체에서 마음의 진리로서는 성(誠)을 위주로 하며, 몸의 진리로서는 경(敬)을, 일에 있어서는 신(信)이 으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음과 몸이 서로 떨어질 수 없고, 또 마음과 몸이 없으면 어떠한 일도 행할 수가 없다. 모든 인간의 행위에는 마음과 몸 그리고 일이 항상 붙어 다닌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誠)없는 경(敬)이 있을 수 없고 ,경(敬)없는 성(誠)이 있을 수 없으며 성(誠)과 경(敬)이 없는 신(信)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성(誠)과 경(敬)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신(信)이 없으면 그 성·경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이처럼 세가지의 진리를 사람이 고루 갖추는데서 비로소 수도인의 자세가 우러나온다고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이상의 대체적인 내용을 골격으로 하여 다음 장에서는 신(信)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신(信)이라는 글자에 담겨있는 본의(本意)와 대순진리에서 주 대상으로 하는 신앙과 신념 그리고 진실의 의미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설명해보기로 하겠다.

Ⅲ. 신(信)의 의미

1. 신(信)의 자의(字義)

신(信)자를 옥편에서 찾아보면 '미쁠(믿음성이 있는) 신', '믿을(의심하지 않음) 신', '진실로(참으로) 신' 등의 뜻으로 나와 있다. 그 글자의 구성에서 보면 "인(人) + 언(言)"으로 이루어져 '사람이 하는 말은 믿지 않을 수가 없음'을 나타낸다. 이상의 자의(字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신(信)은 '믿음'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일상생활 속에서부터 다양한 용어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의(信義), 신용(信用), 신앙(信仰), 신념(信念) 그리고 신조(信條)에 이르기까지 내적인 마음과 외적인 실천을 두루 규정하는 개념인 것이다.

일단 내적인 마음의 상태에서는 스스로 자각된 진리를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세가 곧 신(信)이 된다고 할 것이다. 말하자면 진리에 대한 자각으로 거기에 절대성을 부여하면 신앙이 되는 것이다. 자신의 경험 속에서 터득된

진리는 굳이 번잡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신의 삶과 유리(遊離)되거나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진리라면 한낱 맹신에 불과하다. 진정한 확신은 자신의 삶 속에서 증명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연장자(年長者)가 연소자(年少者)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나은 것이 있다면 바로 경험의 축적이 그만큼 많이 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많은 것을 보고 겪었다면 스스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반대로 자신이 겪어 보지 못한 진리에 대해서는 언제나 의심의 여지가 있게 된다. 그래서 난관이 닥쳤을 때는 쉽사리 진리를 포기하고 기회적인 삶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구천상제님의 대순하신 진리는 무엇보다도 수도인들의 자기 확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백여년전의 말씀이지만 오늘날의 인류가 반드시 지키고 살아나가야 할 진리로서 자각되어져야 한다. 그 믿음의 내용으로서 말하자면 첫째는 강세하신 강증산이 구천상제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며, 둘째는 광제창생(廣濟蒼生)을 위해 단행하신 9년간의 천지공사(天地公事)대로 내일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며, 셋째는 오늘날의 종단인 대순진리회의 신조(信條)대로 행하여야 만이 수도의 목적인 도통을 달성할 수 있음을 믿는 것이다. 이 같은 믿음을 위주로 하여 수도인들은 자신의 마음을 단속해 나가야 하고 또한 경험과 자각을 통해 확신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외적인 실천에서 나타난 신앙의 신(信)은 나아가 일종의 자기 신념으로서 자리잡게 된다. 그 신념에 입각한 모든 실천은 타인으로부터 신용을 얻게 되고 매사에 책임있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덕규범은 곧 '신의(信義)와 신용(信用)'이다. 친구지간 또는 부부지간에 신의가 없으면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마찰이 생길 때 신의가 있으면 서로 양보하는 마음이 생겨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자기의 의견만을 고집하여 결국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신용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맡길 수가 없다. "그 사람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 외에는 하나도 믿을 것이 없다."는 평이 나면 신용 사회에 발을 딛고 살 수가 없을 것이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의심을 받을 것이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아무런 임무도 맡을 수가 없는 것이다. 대순진리를 수

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신앙이 하나의 신념으로 자리잡아 언제나 타인의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나가야 한다. 이것은 타인으로부터 신용을 얻게 되고 곧 수도인의 말을 믿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구천상제님의 덕화를 선양하는 일도 이와 같은 신용있는 처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혹세무민하고 타인의 자제들을 유인하는 행태는 곧 대순진리를 오해하게 만들고 덕화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사회적 신용을 떨어트리게 된다. 언제나 신념이 바르게 자리잡혔을 때에는 이 사회와 이웃으로부터 칭송받는 수도인이 될 것이며, 매사에 성실한 모습만을 보여 나가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믿음이 내·외적으로 갖추어졌을 때 우러나오는 모든 행동은 항상 참되고 진실한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신(信)의 자의(字義)가운데 '진실로' '참으로'의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은 그 행동의 결과가 항상 기대한 바 목적에 도달하였음을 뜻한다 하겠다. 어떠한 난관에 부딪치더라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고수해 나간다면 반드시 자신이 바라는 바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 어떤 목적을 설정해 놓고도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과 신념이 돈독하지 못한 탓이다. 그 목적달성을 위해 나아가고 또 나아가며 정성하고 또 정성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진실이 드러나며 또한 그 결과는 참되다고 할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일의 결과를 참되게 하는 것이 곧 신(信)이며 그 결과에 대한 믿음이 신용으로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대순진리를 신앙하고 신념을 가진 수도인은 매사에 신의를 지킴으로서 신용을 얻게 되고 그 결과 참된 열매로서의 성과를 보이게 되니 모든 사람이 믿어주는 인물이 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신(信)의 자의(字義)를 그 마음의 신앙과 신념 그리고 진실된 일의 결과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이와 같은 신(信)의 자의(字義)를 토대로 하여 신(信)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다.

2. 신앙(信仰)의 신(信)

대순진리의 신앙에 대해서는 앞서도 설명했듯이 기본적으로 세가지 선상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강세하신 강증산이 구천상

제이심을 믿는 것이다. 상제께서는 구천대원조화주신으로서 진멸지경에 처한 인류창생을 구제하고 무궁한 선경의 낙원을 마련하여주기 위해 인세에 강림하셨다. 그 강림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대순진리회 경전인 『전경(典經)』이다.

> 상제께서 九천에 계시자 신성·불·보살 등이 상제가 아니면 혼란에 빠진 천지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호소하므로 서양(西洋)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오셔서 삼계를 둘러보고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동토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상에 임하여 三十년을 지내시면서 최 수운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셨다가 갑자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미년에 스스로 세상에 내리기로 정하셨도다. (예시 1절)

> 상제께서 대순하시다가 선망리의 한 여인이 근친하러 갔을 때 그 여인의 몸을 하늘의 불덩어리로 덮고 이상한 향기와 맑은 기운이 가득히 찬 방에서 신미년 九월 十九일에 광구 천하하기 위해 강세하실 것이 예시되었느니라.(예시 2절)

즉 구천에 계신 상제께서는 여러 신성·불·보살들의 하소연으로 인해 천하를 대순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몸으로 강림함으로써 그 광구천하의 역사를 단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역사적 인물로서 기록된 상제의 성씨는 강(姜)씨이며 존호는 증산이시다.

> 객망리에 강씨 종가인 진창 어른부터 六대에 이르렀을 때 상제께서 탄강하셨으니, 상제의 성은 강(姜)씨이오. 존휘는 일순(一淳)이고 자함은 사옥(士玉)이시고 존호는 증산(甑山)이시니라. 때는 신미(辛未)년 九월 十九일인 즉 이조 고종(李朝高宗) 八년이며 단기로서는 四千二百四년이고 서기로는 一千八百七十一년 十一월 一일이로다. (행록 1장 5절)

천지운행의 진리는 인간의 삶과 무관하지 않으며 군생만물이 모두 그 진리의 작용에 기초를 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을 진리에 맞게끔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이 성인을 탄생시킴으로서 인간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우치게끔 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역사적인 성인의 탄생은 모두 현묘한 진리의 작용에 기초를 두고 있는 바 복희, 단군, 문왕, 공자, 석가, 노자와 같은 사람들은 모두 그 작용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위대한 인물의 태어남은 제왕(帝王)이 될 수도 있고, 사도(師道)로서의 길을 갈 수도 있

다. 강증산 성사(聖師)는 스스로 사도로서의 삶을 살면서 어느 성인도 해내지 못한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게 되었으니 곧 우리 수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천상제(九天上帝)'로 신앙되는 것이다.

신앙의 내용가운데 두 번째로서 강증산 구천상제께서 행한 천지공사(天地公事)가 전무후무한 진리임을 믿는 것이다. 9년간에 걸쳐 행해진 삼계 개벽공사 즉 천지공사는 진멸지경에 처한 인류와 창생을 건지기 위한 상제의 대역사(大役事)이다.

>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경의 운로를 열어서 선천에서의 상극에 따른 모든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道)로써 세계의 창생을 건지려는 상제의 뜻은 이미 세상에 홍포된 바이니라. (예시 6절)

천지공사로서 이룩되는 후천의 선경은 상생의 도(道)가 지배하는 도화낙원의 세계이다. 또 "그 삼계공사는 곧 천·지·인의 삼계를 개벽함이요 이 개벽은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 하는 일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니 예전에도 없었고 이제도 없으며 남에게서 이어 받은 것도 아니요.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요. 다만 상제에 의해 지어져야 되는 일이로다."(예시 5절)고 하였듯이 오직 상제에 의해서만이 지어지는 세계이다 이와 같은 세계를 맞이하고자 그 유지(遺志)를 숭상하고 귀의할 바를 삼고자 창설한 것이 오늘날의 대순진리회이다. 수도인들의 믿음이란 바로 구천상제의 천지공사가 오늘날의 세계를 만들어나가고 있음을 자각하고 그 유지에 입각한 실천을 해나가는 것이라 하겠다.

신앙의 셋째내용으로서는 그와 같은 수도인들의 실천을 위한 교리를 존숭하는 것이 된다. 수도인들이 바라는 목적은 다름아닌 상제께서 이룩해놓으신 천지공사대로 후천의 세계를 맞이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수도인들의 지켜야만 하는 것이 수도생활의 훈전이 되는 '신조(信條)'이다. 신조에서 벗어난 행위는 수행이 될 수 없다. 신조에 의해서 수도생활을 하는 것이 곧 수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된다. 신조는 주지하다시피 안심(安心) 안신(安身) 경천(敬天) 수도(修道)의 사강령(四綱領)과 성(誠) 경(敬) 신(信)의 삼요체(三要諦)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수행의 훈전으로 삼아 실천해 나갈 때 참된 도인이 되는 것이다. 수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은

신조가 수도의 방법이 됨을 믿고 수행함으로써 진정한 신(信)을 이룬다 하겠다.

3. 신념(信念)의 신(信)

신(信)의 의미를 절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찾을 때 신앙이 된다면 사회적 관계내에서의 믿음은 하나의 신념(信念)이라는 것으로 자리잡게 된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간관계를 든다면 군주(국가)와 국민의 관계, 부부관계, 부자관계, 어른과 아이의 관계, 친구관계 등이 있다. 동양의 윤리적 전통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인간관계에서의 덕목으로서 의(義) 별(別) 친(親) 서(序) 신(信) 등의 오륜(五倫)을 설정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인간관계 내에서 서로에게 그 도리를 다할 것으로 기대되는 생각이 곧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회는 그러한 신념들이 작게는 친구사이에서부터 크게는 국가단위에 이르기까지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모여서 커다란 신념체계를 이룬다. 우리의 사회는 거대한 신념체계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념체계에 위배된 행동을 하게 되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고 그 사회로부터 격리된다. 자신의 존재를 상대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가 가진 신념체계에 맞는 행동을 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동양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공자는 일찍이 "자신이 받고 싶지 않은 일을 또한 남에게 베풀지 말라"(『논어(論語)』; 子曰 其恕乎 己所不欲 勿施於人)고 하여 인간관계의 원칙을 설파한 바 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서고자 하면 남을 먼저 세워주고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면 남을 먼저 도달케하라"(『논어(論語)』; 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고 하여 타인의 심정을 먼저 배려하는 자세를 가르쳤다. 모든 인간관계는 이와 같은 신념하에서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신이 받기 싫은 것을 남에게 줄려고 하고, 또 상대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은 올바른 신념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이는 결국 상대로부터 원망을 사서 자신 또한 그 피해를 입게 되니 서로의 맺힌 감정이 척(慼)이 되어 보복한 결과이다.

대순진리를 수행하는 수도인은 먼저 진리에 대한 자각을 토대로 하여 확고한 신념을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 "백성이 국가를 믿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 않는다면 난신적자(亂臣賊子)가 될 것이다"(『대순지침』 p.53)고 하였듯이 신념이 결여된 사회는 항상 부조리가 도사리고 있다. 신하는 임금을 의리로서 모시고 임금은 또한 신하를 의리로서 거느려야 한다. 그래서 신의(信義)라고 한다. 의리를 좌우하는 것은 곧 결단이다. 언제 죽음이 와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수도자가 믿음이 부실하면 결과적으로 난법난도자가 된다. 수도의 체계상 임원과 수반의 사이는 무엇보다도 확고한 신념으로서 만난 사이이다. 아랫 사람이 윗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있다면 배사률에 걸릴 것이며, 윗 사람이 아랫사람을 속이는 일이 있다면 스스로 자멸을 자초하게 된다. 상호 통심정(通心情)의 자모지정(慈母之情)으로 체계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곧 신념을 지키는 것이다.(『대순지침』) 자신의 위치가 승격되었다고 해서 자만에 빠지면 이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며, 공명심(功名心)에 치우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성과에 급급하는 것은 그 신념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구천상제님의 덕화를 선양하지는 못할지언정 손상시키는 것은 전혀 수도인의 본분에 어긋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수도인의 신념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대순진리의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할 것이다. 앞서 설명한 신앙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수도인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며 따라서 확신을 얻게 된다. "믿음은 의심없는 굳은 신념"(『대순지침』 p.54)이라고 하였듯이 끝까지 상제를 신앙하는 마음을 변치않는 것이 또한 신념이 되어야 한다.

> 七월에 상제께서 본댁에 돌아와 계시므로 김 형렬은 상제를 배알하고자 그 곳으로 가다가 문득 소퇴원 마을 사람들의 이목을 꺼려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 가다가 본댁에서 하운동으로 향하시는 상제를 만나 뵈옵고 기뻐하였도다. 형렬은 반기면서 좁은 길에 들어선 것을 아뢰고 「이 길에 들어서 오지 않았더라면 뵈옵지 못하였겠나이다」고 여쭈니라. 상제께서 가라사대 「우리가 서로 동 서로 멀리 나누어 있을지라도 반드시 서로 만나리라. 네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나를 좇고 금전과 권세를 얻고자 좇지 아니하는도다. 시속에 있는 망량의 사귐이 좋다고 하는 말은 귀여운 물건을 늘 구하여 주는 연고라. 네가 망량을 사귀려면 진실로 망

> 량을 사귀라」고 이르셨도다. 형렬은 말씀을 듣고 종도들의 틈에 끼어서도 남달리 진정으로 끝까지 상제를 좇았도다. (교운 1장 7절)
>
> 나를 믿고 마음을 정직히 하는 자는 하늘도 두려워 하느니라. (교법 2장 7절)

상제를 신앙하면서 어떠한 금전과 권세를 얻고자 한다면 올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소박한 심정으로 상제를 좇음으로서 그 종교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자신의 신앙에 입각하여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매사를 처신해 나감으로서 스스로 굳은 신념을 드러내어야 한다.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믿음을 저버리고 스스로 의심하는 것은 신념이 굳지 못해서이다.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의심없는 믿음을 지녀야 한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부부화목하여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며 존장을 경례(敬禮)로서 섬기고 수하를 애휼(愛恤)지도(指導)하고 친우(親友)간에 신의(信義)로서 대하는 것' 등은 모두가 굳은 신념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다. '상제님을 믿고 마음을 정직히 하는 자는 하늘도 두려워한다'고 하였으니 수도인으로서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것은 삼요체인 신(信)을 이루는 첩경이 된다 하겠다.

4. 진실(眞實)의 신(信)

자신의 신념을 확고히 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며 정성하고 또 정성하여 반드시 기대한 바 목적에 도달케 되는 것이 또한 신(信)이다. 이 때 바꾸어 생각하면 참된 결과를 보고서 그 사람의 신(信)을 알 수 있다. 그 참된 결과를 말하자면 '진실(眞實)'이라고 부르며 그 진실에 이르게 하는 것을 신(信)이라 한다. 그 결과가 참되지 못하다면 신(信)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信)의 의미는 참된 결과로서의 '진실'이라는 의미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 일의 과정에서 특히 결과는 원인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결과가 참되지 못하다면 그 원인이 참되지 못한 것이며 결과가 참되다면 그 원인 또한 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불교사상에는 '인과응보(因果應報)'라고 하여 자신이 지은 업(業)에 따라 응당의 과보를 필연적으로 받게 됨을 말하고 있다. 그 업이 전생에 지은 것이라면 현생에서 그 과보를 받으며 현생에서 지은 것이라면 내생에서 또한 그 과보를 받게된다.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결과에도 이렇게 전생 현생 내생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물며 현생의 잘못을 현생에서 받는 것은 더욱 말할 것이 없다 하겠다. 결국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원인이 자신의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자명한 진리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참된 결과를 가져다 주는 신(信)은 말하자면 좋은 원인을 지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한 치의 정성을 들이면 한 치 만큼의 참된 결과를 얻고 한 자의 정성을 들이면 한 자 만큼의 참된 결과를 얻는다. 신(信)이란 그러한 일의 결과를 가름하는 원인이면서도 그것이 집적된 산물(産物)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성(誠)은 마음의 문제이고 경(敬)이 몸의 문제라면 신(信)은 일에서 드러난다고 하였다. 매사에 신(信)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일심으로 상제님을 믿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어떠한 의심을 품고 부정을 저지르게 되면 수도를 해 나갈 수가 없으며 마찬가지로 일을 해 낼 수가 없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믿어 나가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믿음이 강조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일화가 전해온다.

> 상제의 신성하심이 하운동(夏雲洞)에도 알려졌도다. 이 곳에 이 선경(李善慶)이란 자의 빙모가 살고 있었도다. 상제께서 주인을 찾고 「그대의 아내가 四十九일동안 정성을 드릴 수 있느냐를 잘 상의하라」 분부하시니라. 주인은 명을 받은 대로 아내와 상의하니 아내도 일찍부터 상제의 신성하심을 들은 바가 있어 굳게 결심하고 허락하니라. 상제께서 다시 주인에게 어김없는 다짐을 받게 하신 뒤에 공사를 보셨도다. 그 여인은 날마다 머리를 빗고 목욕재계한 뒤에 떡 한 시루씩 쪄서 공사 일에 준비하니라. 이렇게 여러날을 거듭하니 아내가 심히 괴로와하여 불평을 품었도다. 이날 한 짐 나무를 다 때어도 떡이 익지 않아 아내가 매우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노라니 상제께서 주인을 불러 「그대 아내는 성심이 풀려서 떡이 익지 않아 매우 걱정하고 있으니 내 앞에 와서 사과하게 하라. 나는 용서하고자 하나 신명들이 듣지 아니하는도다」고 이르시니라. 주인이 아내에게 이 분부를 전하니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사랑방에 나와 상제께 사과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시루를 열어보니 떡이 잘 익어 있었도다. 부인은 이로부터 한결같이 정성을 드려 四十九일을

> 마치니 상제께서 친히 부엌에 들어가셔서 그 정성을 치하하시므로 부인은 정성의 부족을 송구히 여기니 상제께서 부인을 위로하고 그대의 성심이 신명에게 사무쳤으니 오색 채운이 달을 끼고있는 그 증거를 보라고 하셨도다. (행록 1장 29절)

윗 글에서 이선경의 빙모는 상제의 천지공사를 받들기 위해 시루떡을 찌는 일을 맡았다. 그는 연일 계속되는 수고에 괴로워하여 불평을 하게 되니 더 이상 떡이 익지 않게 되었다. 이는 신명으로부터 노여움을 사서 그렇게 된 것이므로 당장 상제님께 가서 사과하고 나서야 다시 정성을 들일수 있게 되었고 그로써 49일간의 공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는 일화다. 여기서 여인은 상제님에 대한 믿음이 독실하지 못했음으로 몸이 힘들 때 그 믿음을 저버리고 불평을 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수고가 아무런 참된 결과를 가져올 수 없게 되어 헛수고가 되고 만다. 하지만 스스로 반성하여 믿음을 유지해 나감으로써 결국에는 자신이 맡은 일을 무사히 해 냄으로써 참된 결과인 오색채운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신(信)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완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스로 맡은 일에 대하여 불평만 하고 남의 자격과 공부만을 추앙하며 부러워하는 것은 일의 결과를 참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 사람마다 그 닦은 바와 기국에 따라 그 사람의 임무를 감당할 신명의 호위를 받느니라. 남의 자격과 공부만 추앙하고 부러워하고 자기 일에 해태한 마음을 품으면 나의 신명이 그에게 옮겨가느니라. (교법 2장 17절)

사람마다 그 닦은 바와 기국에 따라 그 사람의 임무를 감당할 신명의 호위를 받는다고 하였으므로 자신이 맡은 일에 해태한 마음을 품게 되면 결국 나를 호위하는 신명도 다른 사람에게 옮겨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하는 일마다 참된 결과를 얻지 못하여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것보다는 스스로의 작은 임무라도 정성을 다하여 치루어 냄으로써 진실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이 신(信)을 이루는 길이다. 이것이 곧 자아대성(自我大成)을 위한 길이 되기도 한다. 신(信)은 이렇게 참된 결과로서의 '진실'이라는 의미에서 되새겨야 할 것이며 수도인들의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삼요체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겠다.

Ⅳ. 성(誠)·경(敬)과 신(信)의 관계

앞에서 살펴본 신(信)의 의미는 신앙(信仰)과 신념(信念) 그리고 진실(眞實)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한 것이다. 신앙대상인 구천상제님에 대한 태도와 대 사회적인 실천자세 그리고 자아대성(自我大成)을 위한 작업 등이 모두 신(信)의 의미로서 규정되어진다 하겠다. 이 때 신(信)은 특히 삼요체 가운데 성(誠)·경(敬)의 의미와 대비하여 어떤 관계에 있을까. 그것은 아무리 성·경이 지극해도 신(信)이 결여되었다면 그 성·경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데서 새겨볼 수 있다.

성(誠)의 의미에 대해서는 앞선 논문에서 말하기를 순일무위(純一無僞)하고 미유부동(未有不動)하며 소원성취(所願成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을 가르켰다. 경(敬)에 대해서는 주일무적(主一無適)하고 예(禮)의 근본(根本)이라고 하여 몸으로 나타나는 모든 행동을 규약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래서 성(誠)은 마음의 문제이고 경(敬)은 몸의 문제라고 단정하였다. 이에 비해 신(信)은 일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의 결과를 놓고 볼 때 그 사람이 신(信)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다. 말하자면 매사에 아주 성실하고 몸가짐이 경건하여 바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의 신(信)이 없다면 결국 일을 해낼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대순진리를 수도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구천상제님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정도에 따라 확고한 사람도 있고 부실한 사람도 있다. 또 그 믿음을 빙자하여 덕을 보려는 사람도 있다. 어떤 경우에라도 그 믿음이 확고하지 않다면 수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다 할 수가 없다. "나는 해마를 위주하므로 나를 따르는 자는 먼저 복마의 발동이 있으리니 복마의 발동을 잘 견디어야 해원하리라고 타이르셨도다."(교법 2장 15절) 하였듯이 복마(伏魔)란 곧 역경이나 난관에 해당한다. 그와 같은 역경이나 난관이 닥쳤을 때 이를 헤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고한 신념이 세워져 있어야만 한다. 단지 일신(一身)상의 이익만을 꾀한다거나 단순한 관심의 정도에서 시

작한 일이라면 난관에 부딪쳤을 때 끝까지 상제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없다.

> 또 이르셨도다. 「부녀자들이 제 자식이라도 비위에 맞지 아니하면 급살 맞으라고 폭언하나니 이것은 장차 급살병이 있을 것을 말함이니라. 하루 짚신 세켤레를 닳기면서 죽음을 밟아 병자를 구하려 다니리니 이렇게 급박할 때 나를 믿으라고 하면 따르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으리오. 그러므로 너희는 시장판에나 집회에 가서 내말을 믿으면 살 길이 열릴 터인데 하고 생각만 가져도 그들은 모르나 그들의 신명은 알것이니 덕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예시 43절)

아주 급박하고 정신을 차리기 힘든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자신이 가졌던 부실한 믿음은 동요되기 쉽다. 이 때 보다 강한 유혹에 현혹되면서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 난법난도(亂法亂道)란 그렇게 부실한 믿음에서부터 생겨나는 자기 합리화를 말하며 나아가서는 훼도(毁道)와 비방(誹謗)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전경』에 이르기를 "믿는 자를 손가락으로 세어 꼽았으되 그자가 배신하여 손가락을 펼 때에는 살아 나지 못하리라."(교법 2장 21절)고 하신 말씀은 그와 같은 난법난도를 일삼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흔들림없는 믿음은 자각으로부터 형성된 확신에서 나오므로 스스로 진리에 대한 확신을 얻어 수도에 정진해나가야만 한다. 신(信)이 성(誠)·경(敬)에 비해 가지는 중요성은 여기에 있다 하겠다. 즉 아무리 정성이 지극하고 공경이 지극하더라도 믿음이 부실하면 허사이다. 곤경에 부닥치게 되면 성(誠)과 경(敬)은 금방 사그라들기 쉽상인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곤경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기를 다스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없이 상제님을 신앙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래서 신(信)이란 성(誠)과 경(敬)이 어우러져서 그것이 기대한 바 목적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다.

Ⅴ. 신(信)의 실천

1. 일심(一心)의 수도

삼요체의 하나인 신(信)은 그것을 실천하는데서 더욱 빛이 난다. "믿음없는 행실이 없고 행실없는 믿음이 없으니, 모든 도인들은 행실에서 믿게 하라."(『대순지침』 p.79)의 말씀을 지침으로 하여 행실을 통해 신(信)이 드러나게 해야 할 것이다. 행실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마음이다. 자고로 "마음이 참되지 못하면 뜻이 참답지 못하고, 뜻이 참되지 못하면 행동이 참답지 못하고, 행동이 참되지 못하면 도통진경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心不誠 意不誠 意不誠 身不誠 身不誠 道不誠 ; 『대순지침』 p.76) 는 격언에 비추어 볼 때 참다운 행동은 참다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마음을 유지하는 가장 궁극적인 경지가 바로 일심(一心)이다. 일심은 곧 상제님의 대순하신 진리에 대한 변치않는 믿음을 일컫는다. 이것을 전편에 걸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대순진리회 『전경』이다. 따라서 신(信)을 실천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와 같은 일심이 강조되어 있는 『전경』을 수지독송하여 믿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전경』의 내용 가운데 특히 「교법」 편은 '일심'에 대한 주제로 일관되어 있다.

> 대인의 말은 구천에 이르나니 또 나의 말은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니 잘 믿으라.(교법 2장 2절)

어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이 일심이다. "도를 닦은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뭉치기에 죽어도 흩어지지 않고 천상에 오르려니와 그렇지 못한 자는 그 정혼이 희미하여 연기와 물거품이 삭듯 하리라."(교법 2장 22절)고 하셨듯이 그 정혼이 죽어서도 흩어지지 않는 자는 일심을 가진 자이며, 그렇지 않고 일심을 가지지 않은 자는 죽었을 때 그 정혼이 연기와 같이 사라진다. 그와 같은 일심은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경』을 많이 읽고 교화(敎化)를 많이 들어야 한다. 진정한 일심은 언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상제님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죽겠다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만큼 일심을 가지기 힘들다는 것을 말한다.

일심을 지니기 힘든 까닭은 매사에 고비가 있기 때문에도 그렇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고비에 걸려서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일심을 지닌 수도라고 볼 수없다. 그 고비를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가느냐가 관건이 된다.

> 일에 뜻을 둔 자는 넘어오는 간닢을 잘 삭혀 넘겨야 하리라. (교법 1장 3절)

> 남이 나에게 비소하는 것을 비수로 알고 또 조소하는 것을 조수로 알아라. 대장이 비수를 얻어야 적진을 헤칠 것이고 용이 조수를 얻어야 천문에 오르나니라. (교법 2장 19절)

모든 일에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과정에는 반드시 장애가 있으니 이것을 겁액(劫厄)이라 한다. 그 겁액을 극복하고 나아가는데 성공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 겁액에 굴복하여 자포자기(自暴自棄)하는 데서 탈선이 되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앞길을 막아버리는 사례가 많다고 하였다.(『대순지침』 p.93-94) 남의 비소를 비수로 알고 조소를 조수로 알아서 일심으로 정진하여 참된 수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일심을 지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로 신조(信條)를 지켜나가는 것이 그 방법이라 하겠다. 모든 실천을 신조대로 하는 것이다. 안심(安心)·안신(安身)은 이율령(二律令)으로서 어떤 유혹이나 협박에도 마음의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나를 믿고 마음을 정직히 하는 자는 하늘도 두려워 하느니라."(교법 2장 7절)고 하였으므로 한번 자각된 진리에 대해서는 만고의 불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경천(敬天)·수도(修道)를 해야 한다. 상제님과 모든 천지신명을 받들고 외경(畏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허물을 하나씩 고쳐나가야만 한다. 여기에 일심의 수도가 있다. 그러한 수도인의 마음과 몸의 자세를 규정하는 것이 곧 성·경·신이다. 이 세 가지를 삼요체(三要諦)라고 부른다. 이 가운데 모든 일의 근본이 되는 것을 신(信)으로 본 것이다.

일심의 수도를 통하여 신(信)을 드러내고 그러한 신(信)이 신조(信條)로서

체계화되어 행해질 때 진정한 신(信)의 실천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2. 신용(信用)있는 처세

생활 속에서 신(信)을 실천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서 매사에 신용(信用)있는 처세를 할 것이 요구된다. 신용(信用)은 일의 끝마무리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정성이 지극하고 공경을 보여도 그 결과에서 기대하는 바를 보여주지 못했을 때에는 신용(信用)을 얻을 수 없다. 성(誠)은 마음의 문제이고 경(敬)은 몸의 문제이다. 마음의 성(誠)이 몸의 경(敬)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신(信)이 없으면 그 성(誠)과 경(敬)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다. 신용(信用)이란 그와 같은 성(誠)과 경(敬)을 빛나게 하는 일의 결과에서 얻어지는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신용(信用)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언행이나 약속이 틀림없을 것으로 믿는다는 말이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약속을 잘 지키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일을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완수한다. 그리하여 상대가 기대하는 바의 결과를 반드시 이끌어 냄으로서 상대로부터 신망을 얻게 되고, 다음에 또 그 사람을 불러서 쓰게 되니 이로써 신용(信用)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일에는 계속 그 사람만을 믿고 쓰는 것이다.

신용(信用)을 얻지 못한 사람은 이 사회 어디에도 일할 곳이 없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되기 쉽다. 그렇게 되는 까닭은 모든 일에 있어서 상대가 원하는 결과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기 때문이라 하겠다.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의심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처세를 그렇게 해 왔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사람이 그렇게 신용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으면 할 일이 없게 되고 이로써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것이다.

신용이 없는 사람은 신념도 없다. 말하자면 굳은 신념이 없다고 본다. 굳은 신념은 자신이 기대한 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성하고 또 정성하여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목적하는 바가 분명히 있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 어떤

고난과 역경도 참고 지낼 수 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 실천해 나가기 때문에 매사에 신용있는 처세를 하게 된다. 신용은 그와 같이 굳은 신념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대순진리를 신앙하는 수도인은 누구보다도 신념이 확고해야 한다. 안심(安心) 안신(安身)이 되어야 하며 항상 경천(敬天)·수도(修道)하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한다. 일체의 사심과 욕심이 없이 자신의 수도에만 전념해야 한다. 이 때 요구되는 믿음은 가식(假飾)없는 순수한 신앙의 본의에 입각한 것이어야 하며 자각을 통해 얻은 확신이라야 한다. 그 순수한 믿음은 말하자면 천지 대자연으로부터 주어지는 당연한 법칙에 대한 것과도 서로 통한다.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 말없이 베풀어주는 자연의 혜택이야말로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순수한 것이다.

> 또 상제께서 「춘무인(春無仁)이면 추무의(秋無義)라. 농가에서 추수한 후에 곡식 종자를 남겨 두나니 이것은 오직 토지를 믿는 연고이니라. 그것이 곧 믿는 길이니라」 하셨도다. (교법 2장 45절)

봄에 모든 초목이 싹을 틔우는 것은 토지에 인(仁)의 성품이 있기 때문이다. 봄의 기운은 움츠렸던 데서부터 내뿜는 작용을 한다.(春之氣放也 夏之氣蕩也 秋之氣神也 冬之氣道也; 교운 1장44절) 이에 따라 만물이 씨앗에서부터 싹을 틔우고 생겨나는데 그 덕을 인(仁)이라고 한다. 인(仁)은 모든 덕을 대표하면서 특히 만물을 생(生)하게 함으로써 모든 덕목의 첫째가 된다. 만물이 자라서 가을이 되면 모든 것이 열매를 맺고 다시 원래의 씨앗을 내포하니 순환의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씨앗을 담고 있지 않은 것은 모두 말라서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가을의 덕은 의(義)라고 하고 의(義)는 옳고 그름을 가려서 생사(生死)를 판단하는 결단을 말한다.(春夏秋冬秋爲義 義則決斷也 ; 제생 43절) 이 때 가을의 결단 즉 의(義)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봄에 인(仁)이 있어야만 한다.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저마다의 생기(生氣)로서 자라난 만물은 어떤 열매를 맺기까지는 자라게 해주어야 한다. 그 결과된 것을 보지 않고는 처음 생겨난 조짐으로서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길화개길실 흉화개흉실(길한 꽃은 길한 열매를 맺고 흉한 꽃은 흉한 열매를 맺는다.; 吉花開吉實 凶花開凶實 행록 5장 38절)이라 하였

으므로 길실(吉實)과 흉실(凶實)을 보고서야 그 공과(功過)를 확실히 규정하여 생사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봄에 인(仁)의 생기가 없으면 가을에 의(義)를 주장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농부가 추수한 후에 곡식종자를 남겨두는 것은 다음해 봄에 뿌렸을 때에 반드시 가을에 탐스러운 수확을 거둘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것은 농부가 토지를 믿는 것이고 어김없는 자연의 섭리를 믿는 것이다. 농부는 그 믿음으로 열심히 땀흘려 모내기하고 김을 매며 비료를 뿌려서 알찬 수확을 거둘 수 있다. 농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자연에 대한 믿음은 그 어떤 믿음보다도 순수하고 확고한 것이라 하겠다. 일체의 사심도 없이 운행하는 대자연의 섭리에 대한 믿음은 농부로 하여금 농사에 대한 신념을 갖게 한다. 그리고 천지는 농부에 대해 그 자체의 신용(信用)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계에서 생겨나는 믿음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며 모든 종류의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수도생활 속에서 수도인은 천지 대자연의 신용을 본받아 매사에 신용있는 처세를 행해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일의 결과를 좋게 하는 것이다. 일해 놓은 결과가 정확해야 하며 마무리를 잘 하여야 한다.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말한 대로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정성에 또 정성을 드려야 한다. 그래서 수도인은 어디를 가더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게 하고 모든 일을 도맡아서 솔선수범하는 신용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할 것이다.

3. 포덕천하의 실천

믿음으로서의 신(信)은 대순진리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신앙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천상제님의 대순하신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형성하고 나아가 이것을 신념으로 하여 모든 대인관계와 사회적 실천을 행하는 것이다. 앞에서 신(信)은 주로 일의 결과에서부터 의미를 찾았으므로 그 주된 일이란 다름 아닌 대순진리를 사회적으로 펴는 활동에 달려 있다 하겠다. 그 활동의 대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포덕(布德)이라고 한다.

포덕은 전경을 바탕으로 하여 상제님의 대순하신 광구천하의 진리로 구제창생키 위한 대인접촉이다. 그 포덕은 해원상생 대도의 참뜻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포덕천하가 되어야 광제창생(廣濟蒼生)이 된다. 상제님께서 광구천하(匡救天下)와 광제창생 하시려고 하신 9년간의 천지공사(天地公事)를 널리 알려 지상낙원의 복을 받게 하는 일이 곧 포덕인 것이다. 그 포덕의 과정에서 수도인은 우주를 주재하신 권능의 주인으로서 상제의 무량(無量)하신 덕화와 무변(無邊)하신 권지의 소유주(所有主)이심을 널리 알려야 한다.(『대순지침』 p.21) 수도인이 일을 많이 했다 함은 그와 같은 포덕을 많이 한 경우를 말한다. 어떤 사람이든지 일을 많이 한 사람을 믿어준다. 수도인을 믿는다는 것은 포덕을 많이 하였기 때문이다. 많은 포덕을 한 사람은 많은 일을 한 것이며 그 일의 결과가 분명히 있으므로 믿을 수 있는 것이다.

포덕을 통해 신(信)을 실천하는 것은 그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며 그 결과로서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연관된다.

> 너희들이 믿음을 나에게 주어야 나의 믿음을 받으리라.(교법1장 5절)

> 공우가 삼년 동안 상제를 모시고 천지공사에 여러 번 수종을 들었는데 공사가 끝날 때마다 그는 「각처의 종도들에게 순회·연포하라」는 분부를 받고 「이 일이 곧 천지의 대순이라」는 말씀을 들었도다. (교운 1장 64절)

구천상제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곧 포덕이며 그 믿음의 내용이 대순진리이다. 해원상생·보은상생의 원리를 종교의 법리로 하여 화민정세(化民靖世)하시어 인세(人世)에 낙원을 이룬다 함은 광구천하·광제창생의 대의(大義)이다.(『대순지침 p.20) 그 낙원을 만들어 나가고 다스려 나가는 것이 또한 수도인들의 목적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진리를 믿고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나감으로써 신(信)의 신조를 실천할 수 있게 된다.

포덕을 행하는 수도인은 도(道)를 믿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욱 인정을 베풀면서 이해와 관용을 두터이 하는 것이 상생의 진리이다. 이웃 주민들과의 상호 유대를 맺어 처신처사를 올바르게 하여 신뢰를 받게되면 이것 역시 포

덕이다.(『대순지침』 p.31) 대인관계에서의 솔선수범과 겸손한 자세는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첩경이 된다. 자신의 교만과 자존심을 버리고 오직 상제님의 대순하신 진리를 펴 나가는데 전심전력함으로써 수도인의 신(信)이 드러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Ⅵ. 맺음말

이상으로 삼요체 가운데 신(信)의 의미와 그 실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서 신앙·신념·진실이라는 측면에서 보았는데, 신앙은 대순진리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말하며, 신념은 그 신앙이 기반이 되어 드러나는 생활상을 말하며, 진실은 곧 일의 결과가 되는 신(信)을 지칭한다. 신(信)의 실천적인 사항으로서는 역시 세가지로 나누었는데 일심의 수도를 행하며 신용있는 처세를 행하고 포덕천하를 실천하는 것이 그 주요 사항이 된다.

신(信)에 대한 모든 논의의 핵심은 결국 삼요체를 이루는 성(誠)·경(敬)과의 삼립(三立)을 설명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하겠다. 어느 한가지라도 결여되면 진정한 수도라고 할 수 없음은 신조로서의 삼요체(三要諦)를 정한 것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어느 것이 특별히 비중이 컸다고 할 수 없고 대등한 가치를 누리고 있음을 일단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성(誠)은 마음의 자세에서 경(敬)은 몸의 자세에서 그 가치가 드러난다고 하였고 신(信)은 일의 결과에서 드러난다고 보았다. 이 때 신(信)의 가치는 성(誠)과 경(敬)이 아무리 지극하여도 신(信)이 없으면 허사라는 데서 누차 확인한 바가 있다. 따라서 신(信)은 성·경과 함께 수도인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젖어들 수 있게끔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도인들은 성·경·신을 요체로 삼아서 위로 상제님을 받들고 아래로는 대순하신 진리대로 이룩되어 가는 진리임을 깊이 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순지침』 p.32)라는 말씀처럼 수도인은 자신의 수도생활이 성·경·신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항상 살피고 반성하면서 수도인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해나가야만 할 것이다.